

여야, 地選 공식 선거운동 돌입...전국 돌며 총력전

민주, 내란·민생 앞세워 서울서 첫 일정 국힘, 대여 메시지로 견제...총청권 공략

여야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개막을 하루 앞둔 20일 총력전 태세를 갖추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내란 심판'과 '민생 경제' 키워드를 내세워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방 선거까지 여당이 승리할 경우 입법·행정 권력은 물론 지방 권력까지 정부·여당이 장악하게 된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여당 견제론'에 불을 댕긴다는 각오다.

민주당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완성하는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강점을 적극 부각해 표심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정부까지 무능한 내란 잔당을 소탕하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또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비전을 만들어낼 것인가, 중앙정부와 어떤 협력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을 기점으로 총청권을 거쳐 영남권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경부 축'을 초반에 선점하겠다는 계획에 첫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시작한다.

조 본부장은 "서울시장 선거는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렇게 가고 있다"며 "승리를 위해 당이 가진 모든 인력과 자

원을 함께해 승리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첫 일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또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밀착형' 선거 운동으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경기 여주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자전거 유세단, 뛰박이 유세단 등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어우러지는 선거운동, 당원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선거운동으로 새로운 선거문화의 지평을 열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의 걸음 수와 탄소 절감량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파란수집'을 활용하고 당내 경선에서 낙마한 이들이 참여하는 '오뎅 유세단'으로 감동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과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이 서로 동선을 분리해 여러 지역을 효율적으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앙선대위는 개별 후보와 지역 현안을 부각하기보다는 후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여 공세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내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내부적으로는 수도권 등지에서 지도부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게 현실인 만큼, 방문하더라도 '중앙 스피커'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장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자신의 고향인 충청권으로 향해 캐스팅 보트인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선다. 오전부터 대전을 찾아 재선에 도전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이후로도 '지도부 리스크'가 있는 현장 분위기를 고려해 연고가 있는 충남과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에 행보를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민주항쟁 모욕, 심각한 문제”

국무회의서 스벅·무신사 싸잡아 비판 “사람 탈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비하 표현을 담은 무신사의 옛 광고 문구를 겨냥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이벤트를 질타한 것에 이어,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문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가 된 것은 2019년 무신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속건성 양말’ 광고로, 여기에는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

가 사용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 게시물을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그로 인해 시작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를 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 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화 운동과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 역사 왜곡, 회화화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는 평소 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오후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무신사뿐 아니라 최근 문제된 스타벅스코리아의 마케팅 논란 등을 싸잡아 질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다. 금도라는 것도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상도의라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면 최근 광주 5·18 문제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이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이것을) 인간사회라고 할 수 있겠나. 꼭 형법이 정하는 처벌이나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나”라며 “사람에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金총리 “3대 선거 범죄’ 무관용 원칙”

“선거범 위반 큰 폭 증가...엄단”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자세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4년 전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같은 기간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짚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히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경 등 관계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정청래 “5·18 조롱 처벌법 추진”

스타벅스 5·18 ‘탱크 데이’ 비판 “與후보, 스타벅스 출입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선대본부장은 20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박시진 여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후보자들은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5·18 때만 되면 국민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며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하던 그 장면들을 어떻게 커피 마케팅을

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독일 같은 경우 홀로코스트를 미화·용호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독일처럼 5·18이나 다른 민주화 운동에 대해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텃밭리 프로모션 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진수기자



건강검진

매일체크 ✓ 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